

'위기가 기회' 매출 효자된 농협 하나로마트

마스크 판매·지역 농가 판로 마련 등 공익적 역할 특출 광주 33곳·전남 353곳 등 386곳...올해 21곳 신규 개장

올해 50주년을 맞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고 농산물 판로 역할을 해온 하나로마트는 각종 수익사업이 맞물리면서 지역조합의 주요 경영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6월 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광주 33개·전남 353개 등 전국 2219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하나로마트는 모두 386개로, 전체 점포 수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구 별로 보면 시군구당 14.3개의 하나로마트가 있는 셈이다.

1970년 '농협 연쇄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넓혀왔다. 지난 2016년 한 해만 광주 2개·전남 14개 등 16개 하나로마트가 지역에 새로 문을 열었고 2017년 10개, 2018년 15개, 지난해 9개 등 신규 점포는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2016~2019년 4년 동안 지역에 50개 점포가 신축됐으며 올해도 21개 점포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완도농협과 고흥축협이 하나로마트를 신규 개장했고 남광주농협 호천점(3월)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식자재 마트를 포함 6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천농협은 지난 2월 화양점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선원점도 개장하며 세를 넓힌다. 올 하반기에는 고흥 흥양농협·여수원에 농협·신안농협(6월), 담양 봉산농협·순천 광양축협(7월), 무안 정계·장흥천관·해남 땅끝·장성 황룡농협(9월), 무안농협·보성 회천·신안임자·해남계곡·장성백양사농협·여수농협·광주축협(12월) 등 17개가 신축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하나로마트는 은행과 주유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며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광산구 신가동 하나로마트 광주점이 운영하는 주유소 한 달 매출은 7000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 '사회적 거리두기

로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동네마트를 찾는 수요가 하나로마트에 몰리고 있다. 하나로마트의 성장세에 발맞춰 물품 유통망은 더 견고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2003년에는 목포 농산물유통센터, 2011년에는 광주센터가 건립됐으며, 광주 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5000평(1만6500㎡) 규모 농협하나로마트 광주물류센터는 올 하반기 장성으로 이전한다. 강진우(56) 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장은 "하나로마트는 지역 특점 논란 속에서도 농어촌지역에 공산품과 생필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마스크 공적 판매와 지역 농가 판로 마련 등 공익적 역할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791.88 (+66.44) ▼ 금리(국고채 3년) 1.05 (-0.01)
▲ 코스닥 597.21 (+24.20) ▼ 환율(USD) 1229.30 (-1.60)

광주은행, 신안군과 친환경차 구입 지원 협약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신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구입 자부담금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쏠쏠 천사 마이카 대출' 대출 이자 신안군 지원

광주은행과 신안군이 손잡고 이자 부담을 덜어낸 전기차 구매비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광주은행은 6일 신안군과 '환경친화적 전기차 구매 자부담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안군민은 전기승용차, 전기 1t 화물차 등 전기차를 구입할 때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

하는 광주은행의 '쏠쏠 천사(1004) 마이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 신안군이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송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청정 신안군을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진공 광주본부 청년창업자금 지원

제조업 용자 2억원 상당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 청년창업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창업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멘토링 등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다. 대출금리는 2.0% 고정금리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제조업종 영위기업의 융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예산을 지난해 대비 300억원 증액해 연간 1600억원을 1800개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담보력,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을 공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흥선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자금지원 이후에도 멘토링 등 후속연계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8개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김석기(오른쪽 4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6일 목포농협을 방문해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나주남평·영암삼호·목포 등 상금·업무용 차량·특진 혜택

전남지역 8개 농·축협이 지난해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에서 각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종합업적평가' 대상 20개 그룹 중 전국 1위에 전남 8개 농·축협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조합은 나주 남평농협(조합장 최공섭), 영암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 영암 신북농협(조합장 이기우), 완도 노화농협(조합장 김중량), 해남 현산농협(조합장 이육균), 광주 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 영암축산농협(조합장 이명중) 등이다.

이들 조합에는 상금 300만원과 2000만원 상당 업무용 차량 1대, 직원 특별승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업적평가는 입지유형과 사업량 등을 고려해 20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경제·

신용·교육지원 부문 등 총 47개 항목을 평가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에 이룩한 쾌거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경영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을 위한 지도, 환원사업에 더욱 힘을 쏟아 더 많은 농·축협이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코로나 대출 실행 비율 가장 높다

광주 75.6%·전남 70.4% 전국 평균 59.0% 웃돌아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실행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실행 비율은 광주 75.6%·전남 70.4%로 집계됐다. 전국 실행 비율은 59.0%로, 총 5428개 기업이 보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205개 기업이 보증을 받았다. 2개 기업은 보증신청이 반려됐고 31개 기업은 보증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는 115곳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81곳이 대출을 받았다. 1곳은 반

려, 33곳은 심사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실행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북(36.7%)과 대구(55.0%), 울산(55.1%)은 실행 비율이 최하위권이었다.

지난 달 말 기준 보증 신청금액은 총 1억2301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8000억원을 이미 넘겼다. 7015억 원 상당은 보증이 실행됐고 206억원은 반려됐다. 신청액의 41.3%에 해당하는 5080억원은 보증심사를 받고 있다.

지역 신청금액은 광주 313억원·전남 218억원이며 각각 218억원(69.6%)·198억원(70.5%)이 보증 실행됐다.

신보 호남영업본부 관계자는 "보증 신청이 반려된 기업 대부분은 국내나 지방세 등 세금이 체납됐거나 채권자가 모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